

# 환율 방어선 상승...더 밀리면 외환보유액 위험

### 심리 저항선 1천400→1천450원...금융위기 이후 첫 '위기 환율' 외환보유액,尹정부 들어 감소세...4천억달러 하회 우려 고개

초유의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단기 저항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이 비상이었으나, 어느새 1천400원대가 익숙해지면 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천450원까지 밀렸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다.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천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된다.

◇리더십 부재 속 1천400원대 환율 고착화 조짐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0.1원 내린 1천426.9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그동안 급등한 탓에 1천400원대 고착화 조짐은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1천420원까지 뛰면서 단기 저항선은 1천450원 선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천4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는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금융위기 외에는 겪어본 적 없는 '위기 환율'이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1천450원 정도를 상단으로 봤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1천450원을 조금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신용위기 성격이었으나, 외환위기와 이번 사태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100배 이상 많은 외환보유액에 대외순자산국으로 탄탄한 경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를 받는 사상 초유의 리더십



코스피·코스닥 상승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코스닥은 14.33포인트(2.17%) 오른 675.92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부재가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국 불안 장기화로 극단적인 고환율 상황이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수출 업체는 고환율이 채산성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입 업체의 비용 상

승을 유발해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 경제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급감 가능성...4천억달러 위태

환율이 상승 압박을 더 받아서 외환당국이 공격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설 경우 외환보유액이 대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53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천692억1천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이후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300억달러

이상 줄었다.

규모만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 러시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1천450원을 돌파해 1천500원을 넘나들 경우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털어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그 규모가 급세 4천억달러 아래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 프 거래 등으로 '컨틴전시 플랜'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단기 처방으로 환율 방어가 가능할지도 현재 로선 미지수다.

당장 비상계엄 이후 외환보유액 감소 규모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외환당국은 시장 개입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환율 변동 그래프를 보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눈에 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환보유액이 4천억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이 더 빨라지고 내국인 자본 유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2월 동행축제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행사 잇따라

### 상품권 증정·무료배송 이벤트 등 풍성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전국 1천850여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12월 동행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중점기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이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전통시장 동행축제 분위기를 조성 위한 사전 북업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누적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5만원 을 지급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는 설문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1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무료 배송, 할인쿠폰(최대 30%) 지급 등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온기 가득한 축제"라는 메시지를 담아 열리는 12월 동행축제를 위해 전통시장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12월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이벤트 누리집(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슬기자

## 11월 취업자 12만명 ↑...제조업 10만명 ↓

### 통계청 고용동향...건설·도소매 내수부진 지속

취업자 수가 10만명 안팎의 증가폭을 이어갔다. 자영업업을 비롯한 내수 부문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82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천명 증가했다.

10월(8만3천명)보다는 소폭 늘면서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올해 초 20만~30만명을 오갔던 취업자 증가폭은 5월 8만명으로 급감한 이후로 10만명대 부근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등에서 각각 10만명대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9만6천명 줄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는 1년7개월만의 최대폭인 9만5천명 감소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전자부품, 의복, 종이 펄프류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말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일자리는 8만6천명 줄었다. 2018년 12월(-8만9천명) 이후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8만9천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4만8천명 급감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9천명 감소하면서 2021년 9월(-4만8천명) 이후로 3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에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정남미명과 구황작물빵 선보

(주)광주신세계는 11일 "본관 지하 1층에서 오는 19일까지 강릉 유명 빵집인 '정남미명과'의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 강릉에서 시작해 유명세를 탄 정남

미명과는 감자, 고구마, 밤, 옥수수, 대파 등을 이용한 구황작물빵이 대표 상품이다.

구황작물빵은 귀여운 모양과 국내산 농산물로 속재료를 만들어 믿을 수 있

고 찹쌀로 만든 쫄쫄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다.

대표제품인 감자빵, 고구마빵, 옥수수빵, 밤빵은 각 3천500원, 양파빵, 마늘빵, 대파빵은 3천800원, 종합 세트(10개입)는 3만2천원에 판매한다./정은슬기자



###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